나의 복음과 심복

(빌레몬서 1:8-14)

본문에 나온대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고, 너의 허락 없이 보낼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며, 그런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놓치기 쉬운 게 살아있는 말씀을 예배 중에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 4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사탄을 꺾지 않고, 성경 속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된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잡는 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도 안에 말씀이 있어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못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는 찬양, 기도, 헌금 등 모든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것은 그중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고, 기록된 말씀처럼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기록된, 예수님이 인용하시기 1,500년 전 말씀도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꺾도록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와 재앙의 원인은 원죄이며, 원죄의 이유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꺾고, 해방을 누리고, 정복하는 것.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답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으며, 그는 창조주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받은 말씀은 정지하지 않고, 반드시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말씀 받은 자는 현장 정복하고, 인생 정복하고, 사탄 머리 깨뜨립니다. 문제 전에 말씀 먼저 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받는 것이 기도보다 근원적인 답이며, 말씀은 기도보다 전에 먼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문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에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기도 전에 이미 성취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 역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까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죽게 만들었고, 환경 또한 완전 바꾸셨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역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말씀의 권세이고, 믿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 속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절대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받으면 모든 환경 뒤집힙니다.

1. 나의 복음

4절에,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13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복음에 구분이 없었을 정도로 자신이 복음의 것이 되고, 복음이 그의 것이 됩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것의 답입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며, 인생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복음이어야 삽니다. 그래서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해를 위하여 수치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10%만큼 중요하면 하나님이 10%짜리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복음에 100%면 100% 인생을 만드실 것입니다. 실제로 100%가 되기란 힘들겠지만 마음이 100%면 하나님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표현하며, 전혀 복음과 자신 사이에 구분이 없음을 뜻합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까지 10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10년 동안 많은 기도와 함께 말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제자 이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자신 안에 복음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답이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큰 무리를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 운동이 계속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 5명 제자가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현장에 가서도 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개인화 시키고, 교회에서 사역하며,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나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행전 19장 같은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며, 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깨달으며 가슴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슴에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부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마치고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으나 먼저는 복음을 받고, 개인화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증거를 보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제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이 흐름을 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찾고, 제자를 살리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세우고, 다른 데로 가도 스스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 된 제자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는 결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닌 죄수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창세 전 계획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내 것이 되어,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의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인지, 복음이 나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 '나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말씀 받고, 증거 일어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되는 사람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고,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정말 나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소서. 나도 로마까지 가게 하소서.

2. 심복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는 내 심복이라'. 오네시모를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빌레몬의 노예이자 재산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주인 집에 사람 고기도 먹는 잉어 같은 생선을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굉장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고기를 자랑하고, 그 옆을 그 집 노예가 지나가는데 오라고 하며, 칼로 팔뚝을 잘라 고기의 밥으로 줍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주인의 중요한 것을 훔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바울의 심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로마 16장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등의 타이틀이 7개 있으나 심복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과 같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제자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정확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가슴입니다. 그런 중에 심복과 같은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열리는 것. 그렇게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여 쓰임 받는 제자. 준비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제자를 이끌어 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1:1 전도를 넘어 조직을 가진 팀이 되어 팀사역 전도도 하고, 미션홈도 성취되며, 지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점점 더 정확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소원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복과 같은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메시지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의 복음과 심복을 중요하게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